

보도시점 2026. 10. 14.(수) 12:00 배포 2026. 10. 14.(수) 10:00

이형일 부총리, 통상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방향 논의

- 주요국 정치·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14.(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시욱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이번 간담회는 주요국 정치일정 및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무역장벽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국의 정치·정책 환경 변화가 대외경제 여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정책추진 여건의 변화가 관세·산업정책 등 통상 정책과 대외경제 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대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기적인 통상현안에 적기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통상질서의 구조적 변화에도 대비하겠다”며, “관계부처간 공조와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책임자	과 장	강승민 (044-215-7670)
	통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선 (lms0210@korea.kr)

